

기금운용위원회
2025-①호 안건

공개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2025. 2. 27.

기 획 재 정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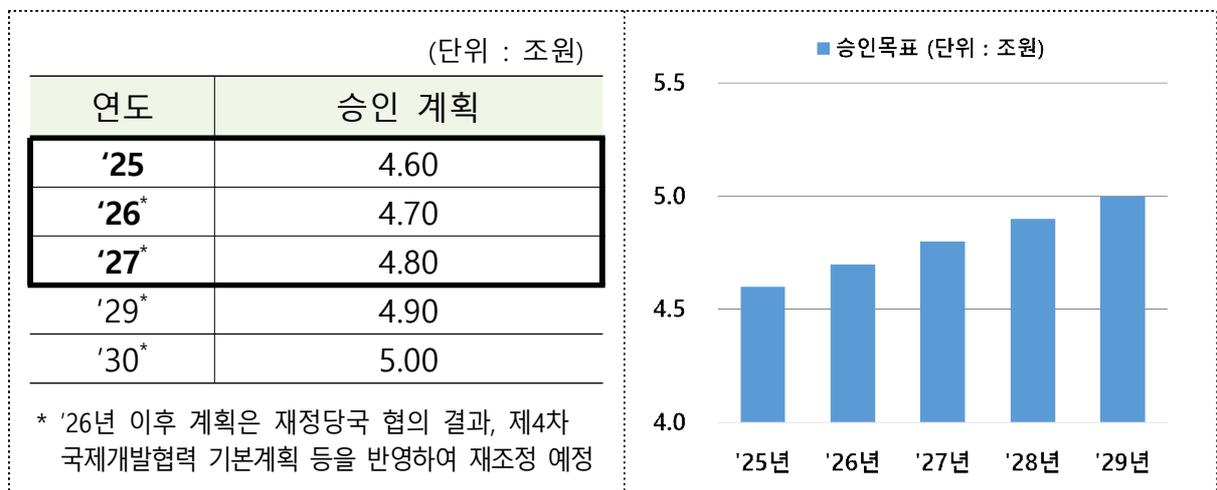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요약)

1. 추진배경 및 성과

- **(배경)** 국제분쟁·기후위기 지속 등으로 글로벌 개발재원 수요가 증대되고, ODA와 대외전략을 연계하는 경향 강화
 - ⇒ 이러한 국제개발환경 변화에 따라 EDCF ①지원규모 확대, ②사업의 질적 내실화, ③우리 대외정책과 연계 강화 필요
- **(24년 성과)** 역대 최대규모 사업 승인(4.9조원) 및 집행(1.8조)
 - 초대형 사업(필리핀 라구나호 순환도로 등) 수주지원으로 EDCF 지원의 효과성·가시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수주기반 강화

2. 중기 운용전략

- **(운용 규모)** ODA 지속 확대 등을 위해 '25~'27년간 14.1조원 승인 및 7조원 수준 집행 추진('24~'26년 계획 13.8조원/6.5조원)
 - **(분야별)**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 전환 촉진 필요성, 우리 대외전략 등을 반영하여 그린·디지털·공급망 중점 지원
 - * 중점분야 승인 규모(억불, '25/'27년): 그린(24/27), 디지털(12/14), 공급망(-/7)
 - **(지역별)** 아시아에 대한 우선순위 유지 및 아프리카 지원 확대
 - * 지역별 승인 비중(%): 아시아(50~60), 아프리카(30~40), 중남미(10~20)



3.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지원강화

- ① (공급망 연계) K-파이낸스 패키지(EDCF, 공급망기금, 정책금융, KSP)를 포함하여 공급망 협력사업 우선 지원
- ② (사업 발굴·개발) 기본약정 확대, 대형사업 MOU 체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 관심이 높은 초대형·고부가 사업 발굴·선점
- MDB 신탁기금, KSP 등과 연계하여 EDCF 사업을 기획·제안

2 EDCF 사업방식 다변화

- ① (민간지원·보증) 개도국 민간전대차관 시범 개시 및 민간지원 수단별 가이드라인 수립, 보증사업(ADB IF-CAP) 본격 추진
- ② (조달 다변화) 수원국 역량과 사업 특성에 따라 조달 방식을 다변화하여 조달 소요기간 단축
- ③ (비구속성 준비) 비구속성 지원제도 정비, 우리 기술우위 분석

3 EDCF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 ① (수원국 역량강화)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확대(3개국 → 6개국)
- ② (운영관리 지원) 완공 후 운영·유지 예산 차관지원 검토, 완공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 정례화 및 사후지원 규모·기간 확대*
* (규모) 최대 20억원 → 50억원 / (기간) 하자보수 종료후 → 진행중에도 허용

4 우리기업 지원 확대

- ① (애로해소) EDCF 차관에 간접세 포함 및 보충융자 지원요건 완화 등을 검토하고 민원심의위(수은) 신설 등 대응 체계화
- ② (중소기업 참여) 소액차관 적용기준 상향(7백만불→20백만불), 중소기업 입찰우대 등 추가 제도개선 검토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중기 운용전략	3
1. 기본 방향	3
2. 중기 운용 규모	4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	5
III. 중점 추진과제	6
1. 전략적 지원강화	6
2. 사업방식 다변화	7
3.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8
4. 우리기업 지원확대	9
IV. 향후 추진계획	10

I. 추진 배경

1 대내외 개발협력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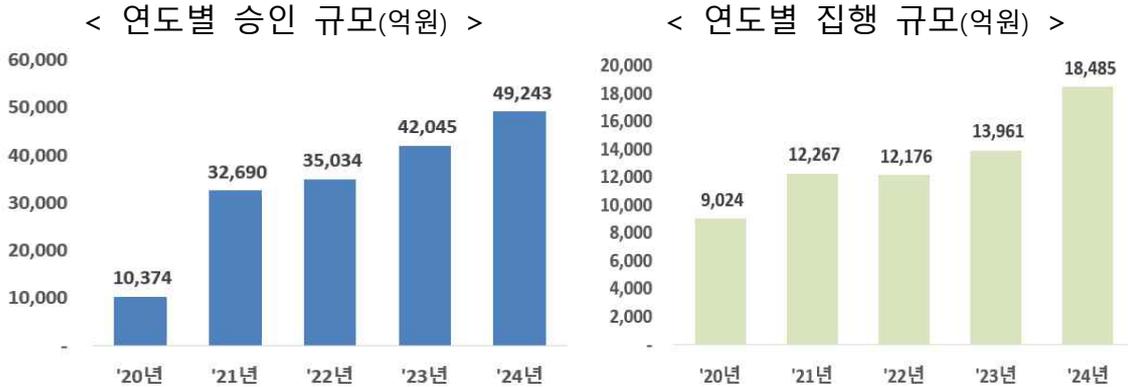
- **(개발소요 확대)** 국제분쟁 및 기후위기 지속 등에 따라 양허성 차관을 포함한 개도국 개발재원 소요 지속 확대
 -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연간 개발재원 부족액이 연간 2.5조 달러에서 4조 달러로 증가(UN, '24.4월)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개발재원 확보를 위해 혼합금융(ODA·상업금융), 보증 등 지원방식 다변화 강조('24.11월 고위급회의)
- **(국익연계 강화 추세)** 글로벌 차원에서 보호주의 확산, 경제안보 강조 등으로 ODA를 대외전략과 연계하는 경향 강화
 - * (美) 90일간 대외원조 중단 및 외교정책과의 일치·효율성 재검토('25.1월 행정명령)
 - 우리도 내년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6~'30년) 수립 등을 계기로 EDCF와 대외정책 연계 필요성 증대
- **(질적내실화 요구)** ODA 양적 확대*에 걸맞는 사업품질 제고, 성과관리 강화 등 질적 내실화 필요
 - * ODA 예산(조원) : ('21) 3.68 → ('22) 3.94 → ('23) 4.53 → ('24) 6.32 → ('25) 6.58
 - 특히 사업완공 이후 인프라 운영·관리까지 지원 등 EDCF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구 증가
- **(구속성 제한)** EDCF 상위협력국의 소득증가로 구속성 원조 제한 국가(1인당 GNI 4,466불이상) 확대 예상
 - * 인니(누적승인 기준 4위 협력국)는 '24.7월부터 구속성 제한 국가로 既 전환

⇒ 대내외 개발환경 변화에 맞추어 EDCF ①지원규모 확대, ②사업의 질적 내실화, ③우리 대외정책과 연계 강화 등 필요

2 2024년 EDCF 운용실적

□ **(지원실적)** '24년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승인 및 집행 실적 달성

- **(승인)** 16개국 22개의 사업에 총 4.9조원 승인(전년비 +17.1%)
- **(집행)** 총 1.8조원 집행(전년비 +32.4%)



□ **주요 성과**

① **(초대형사업 지원)** 초대형·고부가사업 발굴·지원을 통해 지원 효과성·가시성 제고 및 우리 기업의 지속적 수주 기반 강화

* 전체 승인액 중 3억불이상 사업 비중(%): ('22) 19.5 → ('23) 25.6 → ('24) 46.4

○ 한-필리핀 정상회담('24.10월) 계기 라구나호 순환도로(9.1억불, 역대 최대규모) 승인 및 PGN 해상교량 사업(10억불 이상) 선점*

* 한-필리핀 대형 인프라사업 협력 MOU 체결('24.10월)

○ 인니 新수도 침매터널(6.4억불), 우즈베크 고속철 차량(1.9억불) 등 우리 기업 관심 및 후속수주 가능성이 높은 사업 지원

② **(경협기반 확충)**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등을 계기로 주요 협력국과 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여 협력기반 확대

* 기본약정 체결국가-규모 : ('23년) 18개국 210억불 → ('24년) 24개국 353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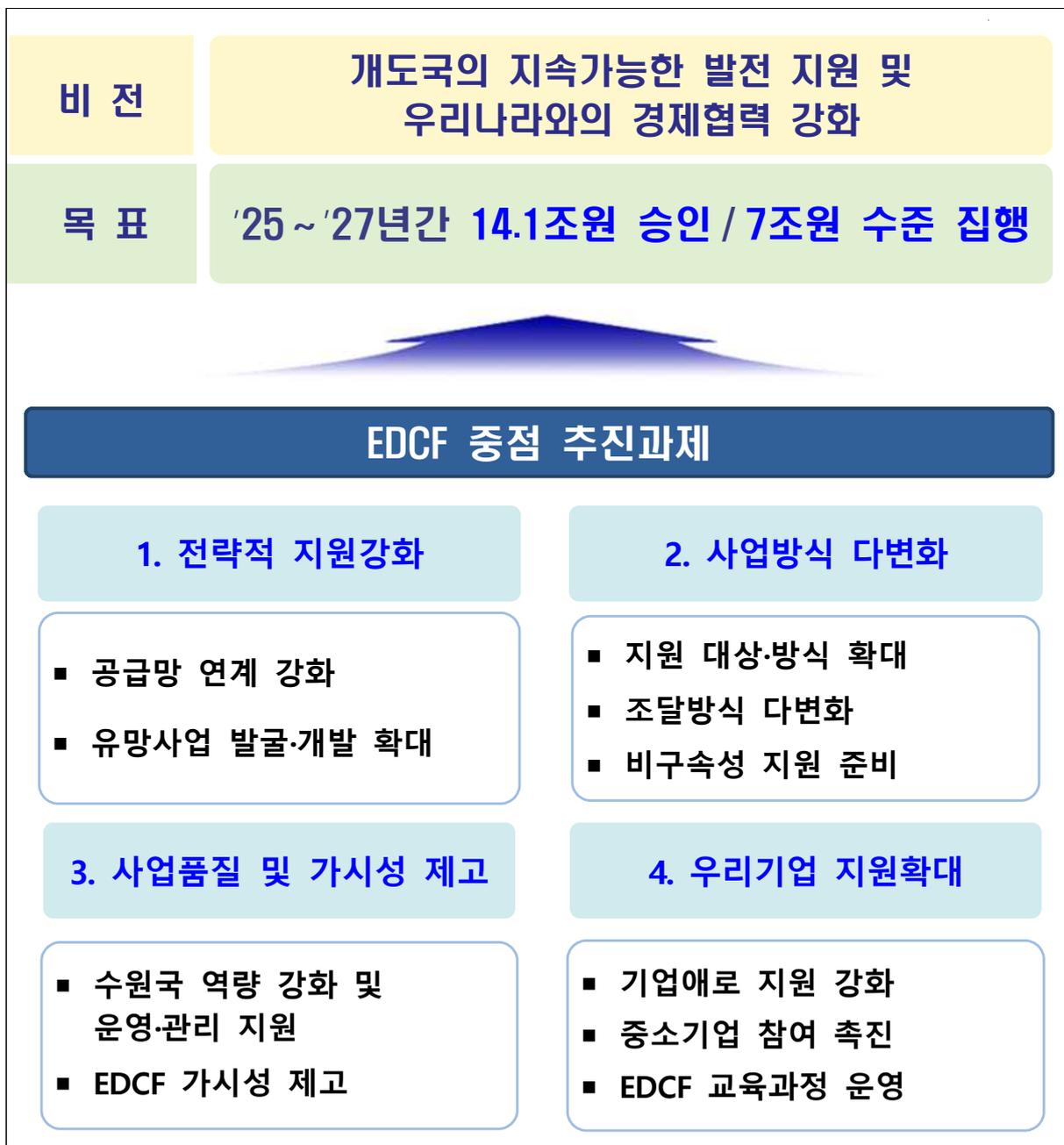
③ **(국제사회 공조)** 우크라이나 공여약속 이행(1억불), 기후변화 지원 ADB 보증사업 참여(IF-CAP*, 1억불) 등 공여국으로서 위상 강화

* Innovative Finance Facility for Climate in Asia and the Pacific

II. 중기 운용전략

1 기본방향

- ◇ 경제협력 잠재력, 기체결한 차관계약, 우리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기운용 규모 및 자원배분 계획 수립
- ◇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익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전략적 지원 강화와 사업내실화 추진



2 중기 운용 규모

◇ 향후 3년('25~'27년)간 총 14.1조원 승인, 7조원 수준 집행 추진

* ('24~'26년 중기운용방향 목표) 3년간 총 13.8조원 승인, 6.5조원 집행

□ **(승인계획)** 향후 3년간 총 14.1조원을 승인하되, 제4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26~'30년)에 맞추어 추후 재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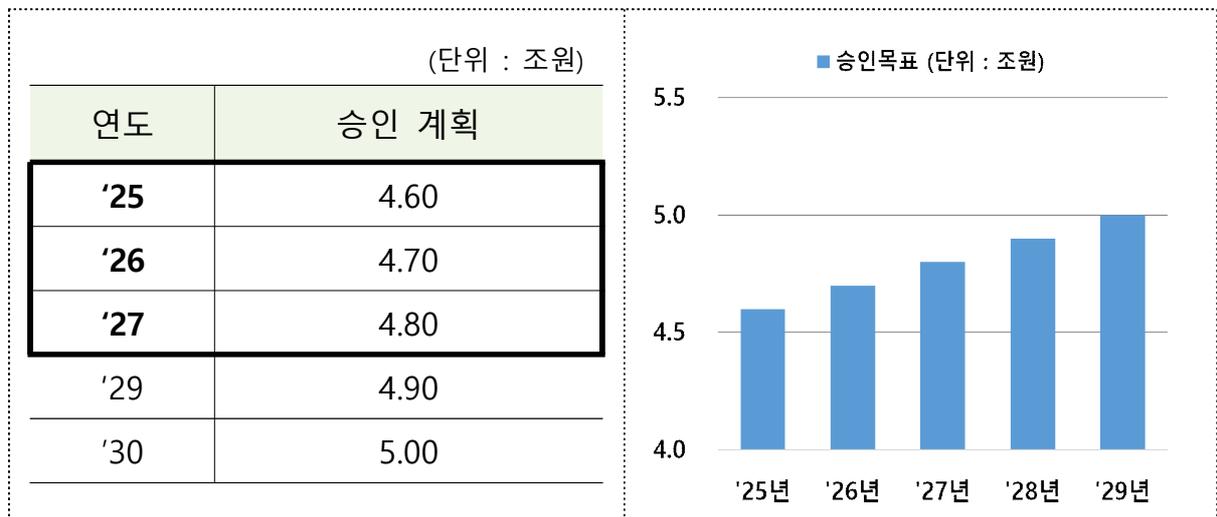
○ '25년은 전년목표 대비 0.1조원 증가한 4.6조원을 승인하고, 매년 0.1조원씩 증액 추진('26년 4.7조, '27년 4.8조원 등)

□ **(집행목표)** 과거 승인된 사업과 기체결한 차관계약의 차질없는 이행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7조원 수준 집행

* ODA 규모를 세계10위('23년 14위) 수준으로 확대('22.6월,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 '25년은 전년대비 6%(+0.2조원) 확대된 2.2조원을 집행하고, 이후 점진적 확대* 추진

* '26년 이후 집행은 재정당국 협의결과,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내용('26년 수립) 등을 반영하여 확정 예정



3 중점 분야 및 지역 배분(안)

- ◇ (분야) 그린·디지털·공급망 분야 중점 지원
- ◇ (지역) 아시아 집중 유지(50~60%), 아프리카 비중 확대(30~40%)

- (중점분야) 개도국의 사업 수요 및 우리 대외전략 등을 반영하여 그린, 디지털, 공급망 분야 중점 지원

	기존 목표(승인 기준)	신규 목표(승인 기준)
그린	('25) 22억불 ('26) 25억불	('25) 24억불 ('26) 26억불 ('27) 27억불
디지털	('25) 11억불 ('26) 12억불	('25) 12억불 ('26) 13억불 ('27) 14억불
공급망	-	('25) - ('26) 5억불 ('27) 7억불

- (그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성을 감안하여 목표 지속상향 ⇨ ('25년) 24억불, ('27년) 27억불
- (디지털) 우리 기업 경쟁력, 개도국 디지털 전환수요 등을 고려하여 확대기조 유지 ⇨ ('25년) 12억불, ('27년) 14억불
- (공급망) 공급망 안정화 및 국익 확보를 위해 공급망 협력사업* 적극 발굴·지원 ⇨ ('26년) 5억불, ('27년) 7억불

* (예) 광산, 산업단지 개발 등과 관련된 물류 인프라, 에너지 시설 등

- (지역) 아시아에 대한 우선순위 유지 및 아프리카 지원을 확대

* '24-'26년 목표 비중(%): 아시아(60~70), 아프리카(20~30), 중남미(10~20)

- (아시아) 대외정책과 연계, 기업 진출 수요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는 유지하되 비중은 소폭 하향(50~60%)
- (아프리카) 공급망 협력 수요, 높은 성장잠재력, 한-아프리카 정상회의('24.6월)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원비중 확대(30~40%)
- (중남미)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로서의 EDCF 역할 등을 감안하여 지원비중 유지(10~20%)

Ⅲ. 중점 추진과제

1 전략적 지원강화

1. 공급망 연계 강화

- **(패키지 지원)** EDCF, 공급망 기금, 정책금융, KSP를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로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뒷받침
 - * (예) 광산개발 투자(공급망 기금) + 정책 자문(KSP) + 관련 인프라 지원 (EDCF) + 광물 가공·생산(정책금융)
- **(우선순위 반영)** EDCF 후보사업 발굴·개발 및 수원국 협의시 공급망 협력사업 우선 추진
 - EDCF 정책협약에 우리 공급망 기금 및 수원국의 공급망 유관 부처도 참여하는 등 상호연계를 강화

2. 유망사업 발굴·개발 확대

- **(저변 확대)** 기본약정을 지속 확대*하고, 고위급 교류계기 MOU 체결 등을 통해 초대형·고부가 사업 선점 추진
 - * (예) 인도 40억불(신규), 앙골라 10억불(신규), 몽골 10억불(갱신) 등
- **(사업 기획)** 우리의 개발 노하우를 활용하여 분야별 개발계획, 세부 정책과제 수립 및 관련 인프라의 구축까지 종합 제안
 - 유망사업의 기획·제안을 위해 MDB 한국 신탁기금, KSP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연계도 강화*
 - * (예) 홍수피해 저감 관련 정책컨설팅(KSP) + 수자원 인프라 구축(EDCF) + 수원국 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MDB 신탁기금)
- **(현지 발굴)** EDCF 사무소 확충으로 현지의 사업발굴 강화
 - 또한, 수원국과의 협력채널을 재무부 외에도 사업부처, 지방 정부, 공기업, 현지 은행 등으로 확대

2 사업방식 다변화

1. 지원 대상 · 방식 확대

- **(민간대상)** 개도국 현지은행을 활용하여 보건·환경 분야 등의 개도국 취약차주 지원(민관협력전대차관) 추진('25년~)
 - 전대차관 외에도 민간부문 지원 수단별(PPP, 개발펀드 출자 등) 지원기준 및 위험 관리방안 등 가이드라인 수립
- **(보증방식)** ADB IF-CAP을 통한 보증사업을 본격 개시('25년~) 하고, 他 MDB 및 개발금융기관(英 BII 등)과도 협력 확대 추진

2. 조달방식 다변화

- **(조달점검)** 수원국 역량이 높고 우리기업 관심은 낮은 소규모 사업 대상으로, '수원국 단독조달, EDCF 사후점검' 시범 추진
- **(조달대행)** 기자재 차관중 수원국의 조달역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예: 재난상황 등), 'EDCF 조달 대행*' 시범 추진
 - * 실제 계약체결 주체는 수원국 발주처이나, EDCF가 입찰서류 작성 등 실무를 대행

3. 비구속성 지원 준비

- **(제도정비)** 해외의 他공여기관 사례 등을 고려하여 現 EDCF 비구속성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재정비
- **(기술우위 분석)** 우리 기업의 기술우위, 강점 사양, 장래 유망 분야 등을 세부 분석하여 향후 비구속성 사업 발주에 활용

3 EDCF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1. 수원국 역량 강화 및 운영·관리 지원

- **(PMA*)** 사업 지연, 대형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관리**가 필요한 국가 중심으로 **PMA 파견 확대**(’24년 3개국 → ’25년 6개국)

* **Project Management Advisor(사업관리자문단)** : 수원국 입장에서 수원국 정부에 기술 자문 등을 전담 지원하는 역할로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 **(운영관리)** 타당성조사시 완공후 **운영·유지 예산*** 분석을 포함하고, 해당 비용에 대한 **차관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 (예)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소요예산 및 관련 전담조직 운영비용 등

- **(사후관리)** 사후점검*을 **정례화**(완공 후 4년, 6년)하고, 사업별 사후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 확대 추진

- **(지원규모)** ^{현행}20억원 또는 차관한도의 10% 중 적은 금액 → ^{개선}50억원 또는 차관한도의 10% 중 적은 금액

- **(지원시점)** ^{현행}본사업 하자보수기간(통상 2~3년) 종료 후 지원 → ^{개선}하자보수기간 중에도 일부 허용*

* (예) 예비비 부족, 유지·보수를 위한 수원국 담당자 교육 등

2. EDCF 가시성 제고

- **(브랜드 명시)** EDCF 지원의 가시성(visibility)이 제고되도록 사업별로 기념비·현판 설치 또는 명칭 반영 등 추진

- **(수원국 협의)** 사업 초기단계부터 EDCF 가시성 확보를 위해 수원국과의 협의를 강화하고 이행여부를 점검*

* (예) ^{심사}수원국과의 협의록에 가시성 확보방안 반영 → ^{구매}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발주 → ^{완공후}사후점검시 가시성 확보방안 반영여부 현장점검 실시

4 우리기업 지원 확대

1. 기업애로 지원 강화

- (기업부담 완화) 우리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간접세) EDCF 차관지원 대상에 간접세* 포함을 검토
 - * 차관계약서상 간접세는 수원국이 자체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원국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우리 기업에 부과하는 경우 빈번
 - (물가)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시 기업지원을 위한 보충용자의 요건 완화·구체화 검토
- (민원 적극대응) 효과적 민원관리체계 구축*으로 애로해소 지원
 - * 1) 수은內 민원처리심의위원회를 신설(본부장 주재)하여 민원 관련 조사·조치 강화
 - 2) EDCF홈페이지에 전자민원 전용창구를 설치하여 민원 접수 일원화 및 체계화

2. 중소기업 참여 촉진

- (소액차관)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한 '소액차관'의 기준을
현행 7백만불 → 개선 20백만불*로 상향
 - * 중소기업 관심도가 높은 소규모 기자재차관 평균(22.3백만불, 최근 10년기준) 반영
- (입찰우대) 수원국의 입찰평가지 중소기업 가점 부여 등* 추가 제도개선 가능성 검토 및 수원국과 협의 실시
 - * (예) 1억불 이하 사업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추가 가점 인정 등
- (맞춤형 제안) 중소기업의 국가별·분야별 진출수요를 파악하여, EDCF 정책협의 등을 계기로 수원국에 사업 先제안

3.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 EDCF 참여(예정) 기업 대상 교육과정(일반¹⁾, 심화²) 신규 운영
 - * 1) 일반(대상/내용) : EDCF 사업참여(예정)자 / 개발협력 일반, EDCF 제도·절차 등
 - 2) 심화(대상/내용) : 컨설턴트·시공사 / 세부 입찰서류 작성, 산업·국가별 특징 등

IV. 향후 추진계획

①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의결('25.2월)

- 주요 수원국 대상 정책협의 등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사업 발굴
- '2025~2027년 EDCF 중기운용방향'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 홍보

② 세부과제별 추진현황 점검

구 분	추진 전략	일 정
전략적 지원강화	K-파이낸스 패키지 등 공급망 후보사업 발굴 및 지원	연중
	EDCF 기본약정 확대 및 유망사업 발굴·기획	연중
사업방식 다변화	민간협력전대차관 및 보증(ADB IF-CAP) 지원	연중
	민간지원 가이드라인 수립	25.下
	조달방식 다변화 (시범사업 추진 등)	연중
	비구속성 제도정비	25.下
EDCF 사업품질 및 가시성 제고	PMA 파견 확대	연중
	운영관리 및 사후지원 확대 관련 제도개선	25.下
	EDCF 가시성 제고 및 수원국 협의	연중
우리기업 지원 확대	소액차관 기준 개정	25.上
	세금 및 물가상승 관련 제도개선 검토 및 이행	연중
	민원 관리체계 구축	25.上
	EDCF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	연중

참 고

EDCF 기본약정(F/A) 체결현황

- F/A는 정부간 중기 지원한도·기간을 설정하는 포괄적 약정으로, 그 범위 내에서는 개별사업 승인에 대한 약정(A/R) 체결 생략
 - 승인 절차 간소화, 양국 간 중기 협력의사 확인, 수원국 내 유망한 중기후보사업 확보 등의 순기능 보유

지 역	국 가	F/A 기간	F/A 한도	비 고
아시아	방글라데시	'23~'27년	30억불	50억불로 확대추진
	베트남	'24~'30년	20억불	
	미얀마	'18~'22년	10억불	
	스리랑카	'20~'22년	5억불	
	인도네시아	'22~'26년	15억불	
	파키스탄	'22~'26년	10억불	
	필리핀	'22~'26년	30억불	60억불로 확대추진
아프리카	세네갈	'21~'24년	5억불	
	케냐	'22~'26년	10억불	
'24년 체결	우크라이나	'24~'29년	21억불	24.4월 체결
	캄보디아	'22~'30년	30억불	24.5월 체결
	우즈베키스탄	'24~'27년	20억불	24.6월 체결
	이집트	'24~'28년	30억불	
	탄자니아	'24~'28년	25억불	
	가나	'24~'28년	20억불	
	코트디부아르	'24~'28년	10억불	
	모잠비크	'24~'28년	10억불	
	에티오피아	'24~'28년	10억불	24.7월 체결
	우간다	'24~'28년	5억불	
	르완다	'24~'28년	10억불	
	라오스	'24~'27년	5억불	24.10월 체결
	볼리비아	'24~'28년	10억불	24.12월 체결
	키르기즈스탄	'25~'29년	5억불	
	'25년 체결추진	앙골라	'24~'28년	10억불
세네갈		'25~'28년	5억불	
인도		'25~'28년	40억불	
몽골		'25~'28년	10억불	체결 추진중(증액)